

서동설화의 주체 연구

한 예 찬

(국민대학교 강사)

I. 서 론

II. 서동요의 작자 문제

III. 미륵사의 창건 주체

IV. 결 론

<국문 요약>

<薯童謠>는 百濟의 武王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鄉歌이다. 『삼국유사』 奇異편 무왕 조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 설화에 보면 어릴 적에 서동으로 불리워졌던 백제의 제 30대 왕인 武王 夫餘 璋이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들어가서 신라 善花公主의 사랑을 얻기 위해 지어서 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 奇異편 무왕 조에 기록된 <서동요>의 배경설화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견해도 서동설화의 주체를 武王으로 보는 견해 뿐만 아니라 마한 무강왕설, 동성왕설, 무령왕설, 무강왕설, 원효설 등이 있다.

향가 <서동요>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미륵사 창건설화의 주체에 대해서도 선화공주설과 함께 백제인 왕후설이 있으나, 최근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서 무왕의 왕후가 백제의 귀족 세력인 사택 씨의 딸로 기록된 것을 계기로 국문학계와 역사학계를 막론하고 신라 선화공주 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봉안기> 발견을 계기로 신라 선화공주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택왕후가 미륵사 창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려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사리봉안기>에 나오는 사택왕후의 법화신앙은 미륵사 창건의 요인이 된 미륵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써 오히려 미륵사 창건의 주역이 사택왕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즉 <사리봉안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불교 신앙과 미륵사 창건의 배경, 그리고 무왕과 의자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미륵사의 初創은 무왕과 선화공주가 주도했으며, 사택왕후는 무왕 재위 말기 미륵사지 서원과 동원의 창건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서동설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꿈을 반영했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설화, 역사, 신이(神異), 미륵신앙, 민중.

I. 서론

<薯童謠>는 百濟의 武王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鄉歌이다. 『삼국유사』 奇異편 무왕 조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 설화에 보면 어릴 적에 서동으로 불리워졌던 백제의 제 30대 왕인 武王 夫餘 璋이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들어가서 신라 善花公主의 사랑을 얻기 위해 지어서 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구체 형태의 짧은 향가인 <서동요>는 그 해독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도 작품의 현대어 해독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요>에 대한 연구는 작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노래의 배경 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서동요>의 작자인 서동의 정체를 밝히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논의가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고 있다. 서동설화의 주인공, 즉 <서동요>의 작자 문제는 주인공인 서동을 단지 설화 속의 인물로 보는 견해와 역사 속의 인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서동요>의 작자인 서동의 정체와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삼국유사』 奇異편 무왕 조에 기록된 <서동요>의 배경설화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견해도 서동설화의 주체를 武王으로 보는 견해뿐만 아니라 마한 무강왕설, 동성왕설, 무령왕설, 무강왕설, 원효설 등이 있다.

향가 <서동요>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선화공주의 정체에 대해서도 최근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서 무왕의 왕후가 백제의 귀족 세력인 사택 씨의 딸로 기록된 것을 계기로 국문학계와 역사학계를 막론하고 신라 선화공주 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고전문학은 오래 전에 기록된 문학이고, 역사적 기록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품의 문학적 성격과 작품이 씌어질 때의 역사적 정황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국문학계와 역사

학계의 대다수 연구자들의 논지와는 달리 서동설화의 주인공이 백제의 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라는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II. 서동요의 작자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동요>는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배경 설화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은 ‘서동설화’가 수록된 『삼국유사』의 성격을 분석해보자. 『삼국유사』는 고려 말에 승려 일연이 편찬한 우리 나라 고대 역사서이다. 그러나, 『삼국사기』가 사실 위주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반해 『삼국유사』는 초인간적인 神異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삼국유사』의 기록들은 설화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 ‘기이’ 편에 실린 설화들은 특출한 인물들의 탄생과 행적을 신이한 신화로 기록하고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 편의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의 성인이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설하고자 함에는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 법이지만, 帝王이 장차 일어날 때는 符命과 圖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과 다른 일이 있었다. 그런 연후에야 능히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장악하고 대업을 성취하였다.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럽게 탄생했다는 것이 어찌서 괴이하랴. 이것이 神異를 諸篇의 앞에 신는 까닭이다. (『삼국유사』 권1, 叙)

일연은 성인이 태어나는 데에 있어서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여 예언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이한 일이 삼국의 시조 모두에게 해당됨을 말하면서 삼국의 모든 신이한 일을 史的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自序’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연은 神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神異한 사실들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전개해 온 커다란 추진력이라고 인식하여, 실제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 혼용의 일체

로서 신이를 받아들였다¹⁾는 점이다. 따라서 신이한 행적이나 사건들이 『삼국유사』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었고, 그 결과 『삼국유사』의 세계는 신화와 전설의 세계이며 신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²⁾. 이를 두고 조희웅³⁾은 『삼국유사』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찍이 학계에서는 『삼국유사』의 문헌적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 이는 물론 이 책의 기록들이 일연 개인에 의하여 특별한 목적의식 아래-가령 불교 포교를 위한-만들어진 것이지, 그 기록 자체가 모두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내용의 비현실성으로 본다면,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게, 혹은 무관하게 형성되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또한 조홍욱은 위의 글을 인용하면서 『삼국유사』 소재 자료들의 성격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설화적 성격의 이야기 중심⁴⁾이라고 말했다. 즉,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삼국유사』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서동 설화’ 역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일연은 神異로써 합리적인 당시의 유교 사관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록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일연은 우리 나라의 전래하는 옛 기록들을 가능한 대로 인용하였고, 중국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되도록 우리 나라 옛 기록들이 인용한 典據를 밝혀 재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하면서 수많은 典據를 가지고 실제로 전하는 자료 전달에 충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神異에 대한 그의 인식은 신화

-
- 1)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비평사, 1976.
 - 2)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 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 3) 조희웅, 「삼국유사 불교설화의 형성과정」, 정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199~206쪽.
 - 4) 조홍욱, 「서동요 배경설화의 구성방식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43쪽.

자체를 그대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이한 역사 이야기들이 내포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사실로서의 역사’로 기록했다면, 일연은 『삼국유사』를 ‘神異로서의 역사’로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들을 단순히 전승되는 이야기로 본다면 <서동요>의 주체 역시 서동왕자, 즉 백제의 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라기보다 전승되는 이야기 속에다 역사 속의 한 인물, 또는 상징적인 한 인물을 삽입시켜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수록된 다른 설화들을 볼 때, 『삼국유사』를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책으로 보는 것은 오류이다.

<단군 신화>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일연이 『삼국유사』에 <단군신화>를 수록⁵⁾한 것은 高麗가 원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백제와 신라, 발해 등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어지러운 시기였을 때 민족의 구심점으로 단군을 부각시켜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考慮할 때 『삼국유사』의 역사적 기록을 부정하고 단순한 설화 자료집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보면 이주민인 天神族(환웅 일행)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쪽으로 이동해서 곰토텐 부족과 손을 잡고 호랑이 토텐족을 축출한 뒤 ‘조선’(古朝鮮)을 건국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사료적 성격을 감안할 때 ‘서동설화’ 역시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와 관련된 설화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서동설화의 주체, 즉 <서동요>의 작자가 백제 무왕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서동을 마한의 무강왕으로 보는 견해⁶⁾가 있는데, 이는 일연이

5) 『삼국유사』의 편찬연대는 확실치는 않지만 13세기 말인 충렬왕 때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언급한 古本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 윤철중⁷⁾은 『삼국유사』 「무왕」條의 이야기에서 무왕으로 바뀌게 된 인물은 『高麗史』, 『東史綱目』, 『新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지리지 같은 지리서 및 『東國歷代總目』, 『大東史綱』과 같은 역사서에서는 古本처럼 ‘무강왕’으로 되어 있으며, 무강왕은 마한의 건국 시조로 기술되어 있는 점을 들어 서동설화의 주인공을 마한 무강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古本の 무강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연이 주인공을 무왕으로 억지로 꿰맞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구려의 평원왕을 평강왕이라고 기록하기도 한 것처럼 같은 인물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무왕이라는 이름 또한 백제의 무왕과 발해의 무왕⁸⁾이 있듯이 같은 묘호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왕릉으로 알려지고 있는 익산 쌍릉의 구조를 보면 마한 무강왕설의 오류가 드러난다. 쌍릉은 그 구조가 부여 능산리 백제 왕릉과 같은 구조인 판석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분 양식은 백제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이후인 6세기 중후반부터 나타나서 백제 말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고분 양식만으로도 무왕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쌍릉에서 발견된 목관의 잔해를 분석해 본 결과 일본에서 자생하는 소나무인 금송으로 밝혀졌다.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짐작할 때 쌍릉은 마한의 왕릉이 아니라 백제의 왕릉이므로 마한 무강왕설은 오류가 분명한 것이다.

이병도⁹⁾는 백제 제24대 동성왕이 신라의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한 사실을 지적하고 서동은 동성왕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동성왕이 신라 여인과 혼인한 것만으로는 서동이라고 내세울만한 논거가 약하고 동성왕이 혼인한 상대는 공주와는 급이 다른 귀족의 딸이었다.

6) 윤영옥, 「무강설화의 인정」, 『민족문화논총』 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7) 윤철중, 「무강신화의 성립」, 『자하어문논집』 13집, 상명어문학회, 1998.

8) 발해 시조 대조영(고왕)의 맏아들로써 훗날 발해 제 2대 왕이 되었다.

9) 이병도, 「서동설화」의 신고찰, 『역사학보』 1, 1953.

또한, 사재동¹⁰⁾은 서동을 무령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륵사는 백제 불교 문화가 성장하던 시기인 무령왕代로부터 위덕왕代 사이에 미륵사가 창건되었을 텐데, 무령왕 시대는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안정기로 접어든 시대였기 때문에 무령왕 때 미륵사가 창건되었고 그 이래로 그 주변에서는 창건주인 무령왕의 이야기가 구전되었으리라 추측했다. 그리고 일연이 註로 달아 놓은 ‘武康王’의 ‘康’ 자가 ‘寧’ 자의 忌諱로 쓰일 수 있어서 서동은 무령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무령왕이 무강왕의 다른 표기였다면 일연이 굳이 무왕으로 바꾸어 『삼국유사』 무왕조의 이야기로 개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선기¹¹⁾는 ‘서동’을 원효로, ‘선화 공주’를 ‘요석 공주’로 해석했다. 원효의 노래를 듣고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계락을 꾸며 요석 공주와 결혼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동설화는 미륵사 창건과 연관이 있으며, 원효 설화는 원효의 파계와 설총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필자와 마찬가지로 ‘서동’을 백제의 무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군태¹²⁾는 법왕의 아들이 서동인 것은 맞지만 그의 출생이 池龍과 여인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설화화된 것은 서동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법왕은 조부인 위덕왕의 오랜 재위로 인해 성년이 된 후에도 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池龍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또, 양주동¹³⁾은 설화의 내용을 충실하게 읽어내어 서동 즉 백제 무왕의 아명인 ‘맛둥’은 무왕의 俗名인 ‘末通大王’(맛둥)이라는 어원적 해석을 통해 서동을 무왕으로 단정지었다.

10) 사재동, 「‘서동설화’ 연구」, 『장암 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11) 김선기, 「쇼퐁노래」, 『현대문학』 통권 151호, 1967.7

12) 김군태, 「한국 설화에 있어서 신화적 인물의 출현방식과 의미」, 『운당 구인환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한샘출판사, 1989.

13) 양주동, 『古歌研究』, 박문출판사, 1954.

그러나 이처럼 어원적 해석을 통해 서동을 무왕으로 보는 견해는 초기 국문학자들의 입장이고 최근에 발표된 많은 연구들은 서동이 무왕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같은 연구들은 『삼국유사』를 역사와 거리가 먼 설화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연이 『삼국유사』를 神異로서의 ‘역사’로 서술했다고 본다면 서동을 무왕이 아닌 다른 인물로 보는 주장은 모두 오류가 생긴다. 설화에서 서동과 결혼한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제 26대 왕인 진평왕의 재위년도는 서기 579년부터 632년까지이다. 그 당시에 마한이라는 나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한 무강왕설은 잘못이다.

다른 주장들을 살펴 봐도 마찬가지이다. 백제의 동성왕은 501년도에 사망했고, 무령왕의 재위 년도는 501년부터 523년까지이다. 모두 진평왕의 생존 및 재위 기간과 많은 차이가 있다.

반면에 백제 무왕의 재위 년도는 600년부터 641년까지이므로 진평왕 재위 중에 백제의 왕이 되었다고 본다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더구나 전술한 것처럼 말통대왕(무왕)릉으로 전해지고 있는 익산 쌍릉의 고분 양식도 무왕의 재위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뒷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미륵사 창건 시기도 무왕 재위 시기와 일치한다. 『삼국유사』 무왕 조에 나오는 무왕의 탄생 신화를 살펴보자.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모친이 과부로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던 중 그 연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 아명을 서동(薯童)이라 하였는데,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어 팔아서 생활하였으므로, 국인이 이에 의하여 이름으로 하였다.

이 부분은 異類交婚의 신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夜來者 설화는 후백제 시조 견훤 왕의 출생 신화에서도 확인된다.

광주¹⁴⁾ 북촌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쁜 딸 아이가 하나 있었다. 나이

가 들자 매일밤 자주빛 옷을 입은 동자가 이 처녀의 방에 찾아와 자고 가곤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처녀의 아버지는 동자가 방에서 나갈 때 긴 실을 바늘에 꿰어 남자의 옷에 꽂아두라 하였다. 어느 날, 동자가 나갈 때 바늘을 꿰어둔 처녀는 실을 따라 나가보니 담장 밑에 큰 지렁이가 바늘이 허리에 꽂혀 죽어 있었다. 그 뒤 처녀가 아기를 배어 아들을 낳았는데, 성은 ‘견’, 이름은 ‘훤’이라고 했다. 견훤의 어머니는 아기를 수풀에 놓고 발일을 하고 왔는데 아기가 호랑이 곁에 누워 젖을 빨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견훤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예언했다. 견훤은 예언대로 체모가 웅장하고 기운이 비범하게 장성하였다. 결국 광주에서 군사를 일으켜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夜來者 설화를 근거로 무왕의 탄생 신화가 단지 설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지만 신화를 풀이해보면 무왕의 출생과 함께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김균태는 ‘무왕의 아버지인 법왕¹⁵⁾이 조부인 위덕왕¹⁶⁾의 오랜 재위로 인해 성년이 된 후에도 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왕을 가리켜) 池龍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썼다고 그의 논문에서 말했는데, 위덕왕은 법왕의 조부가 아니라 아버지이다. 위덕왕의 뒤를 이은 혜왕이 위덕왕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혜왕과 법왕이 나란히 재위 1년만에 사망한 것을 보면 당시에 백제의 왕권이 매우 약했으며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동 출생 설화’에서 池龍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서동은 지위가 낮은 왕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북사』에는 무왕을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대로 위덕왕의 아들이든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법왕의 아들이든간에 무왕은 庶出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4) 이도학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견훤의 출생지가 상주 가은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전술 속의 지명 光州는 尙州의 誤記라고 말하고 있다. (이도학, 『궁예 진흥 왕건의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82~84쪽.)

15) 백제의 제 29대 왕

16) 백제의 제 27대 왕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신분이 천한 어머니와 함께 초라하게 살면서 마를 팔아 연명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러던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귀족들에 의해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허수아버 왕으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무왕은 왕이 되자 왕권을 강화하고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여 신라에 비해 수세에 몰려 있던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다.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무왕의 그러한 배짱과 능력, 인품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신라 땅에 잠입하여 <서동요>를 퍼뜨린 뒤 대담하게 선화공주 앞에 나타나서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주를 아내로 삼아 백제로 데리고 오는 그의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지금까지 <서동요>의 작자가 백제 무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 논증해 보았다. 전술한 것처럼 그 문제는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래에는 『삼국유사』를 단지 설화 자료집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단군 신화>나 <주몽 신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삼국유사』의 기술 방법을 보면 『삼국유사』는 神異한 역사 기록, 상징적인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 진평왕 재위시와의 연대나 미륵사 창건 연대, 무왕릉으로 전해지고 있는 익산 쌍릉의 고분 양식을 통해서 <서동요>의 작자는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백제 무왕이라고 전제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Ⅲ. 미륵사의 창건 주제

‘서동설화’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은 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서동의 연도 대상인 선화공주의 정체, 즉 미륵사 창건 주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신라 진평왕의 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는 천명공주와 덕

만공주 두 명만이 등장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서동과 함께 <서동요>, 그리고 ‘서동 설화’에서의 미륵사 창건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다.

미륵사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사찰로써 백제의 사찰 중에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보수해오던 과정에서 2009년 1월, 미륵사지 서탑 1층을 해체하던 중에 金製 사리호와 <사리봉안기> 등의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사리봉안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근기에 따라 감응하시고, 중생에 응하여 몸을 드러내신 것은 마치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으셨다. 그래서 왕궁에 태어나시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을 보이셨으며, 8곡의 사리를 남기시어 삼천대천세계에 이익이 되게 하셨다. 마침내 오색으로 빛나는 사리로 하여금 일곱 번 돌게 하였으니 그 신통 변화는 불가사의하였다.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선인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만인을 어루만져 기르고 불교의 동량이 되어 능히 정재를 회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봉양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기해년, 즉 무왕 40년인 서기 639년 정월에 미륵사 서탑에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사리 봉안의 주체는 좌평 사택¹⁸⁾적덕의 딸인 왕비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사리봉안기>의 발견으로 국문학계와 역사학계에서는 신라의 선화공주를 허구의 인물로 규정하고, 무왕의

17) 『삼국사기』에 선화공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삼국사기』에는 왕의 자녀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명공주는 태종무열왕의 김춘추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며, 덕만공주는 선덕여왕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다. 즉, 선화공주는 자신이 왕이 되지도 않았고 신라 왕실에 자손을 남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18) 沙宅씨는 백제 후기 귀족 세력이었던 大姓八族의 하나로 왕비를 배출할 만큼 세력이 컸다.

왕비이자 미륵사 창건의 주체를 사택왕후로 단정짓는 견해가 쏟아졌다.

미륵사 창건에 대해서도 몇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사리봉 안기 명문에 보이는 것처럼 사택왕후가 미륵사 전체를 창건했다고 보는 견해¹⁹⁾이다. 미륵사는 3원(院), 3탑(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련된 설계에 따라 3원 병립 가람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로는 미륵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택왕후는 서원의 조성에만 참여하고 중원과 동원의 창건은 다른 발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²⁰⁾이다. 세 번째로는 이와 비슷한 견해로 명문에 보이는 불교 신앙을 감안할 때 중원은 미륵불, 서원은 석가불, 동원은 다보불로 미륵신앙과 석가신앙, 법화신앙이 보인다고 하며 중원은 무왕과 선화공주, 동원과 서원은 사택왕후가 창건했다고 보는 의견²¹⁾도 있다. 그런가 하면 미륵사 전체 창건의 실질적인 주체를 무왕으로 한정하는 견해²²⁾도 있다.

미륵사의 창건 주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륵사지 서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 등장한 무왕의 왕후인 사택적덕의 딸에 대한 기록만으로 선화공주의 존재를 단정지어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은 왕조 시대의 임금의 부인을 여러 명 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좌평 사택적덕의 딸은 무왕의 여러 왕후 중의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왕 39년²³⁾ 봄 3월에 왕은 빈(嬪)과 더불어 큰 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 - 『삼

19) 김상현,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마한백제연구소백제학회, 2009, 147~148쪽.

20) 길기태, 「무왕대 미륵사 창건과정과 불교계」,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불교』, 한국사상사학회 발표 요지문, 2009, 17쪽.

21) 조경철, 「백제 익산 미륵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 『한국사상사학』 제32권, 한국사상사학회, 2009, 19~20쪽.

22) 박현숙, 「백제 무왕의 익산 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제36권, 고려사학회, 2009.

국사기』 백제본기 5권 무왕條 39년

이러한 기록을 통해 무왕에게는 正妃와 嬪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 法王 條의 마지막 부분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기』에 실려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무왕은 여기에 가난한 어머니가 못 속의 용과 관계하여 낳은 이로, 어릴 때 이름은 서여, 즉위한 뒤에 시호를 무왕이라 했다. 이 절은 첫 왕비와 더불어 이룩한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 ‘첫 왕비’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즉, 무왕의 왕비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택왕후의 이름이 등장하는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에 나타나는 기해년(서기 639년)은 무왕이 사망하기 2년 전이다. 즉, 무왕 초부터 창건을 추진해 온 미륵사가 무왕 말기에 서원과 서탑 건립을 끝으로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추정되는 미륵사의 규모로 미루어 보았을 때 창건에 수십 년이 걸렸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주성은 미륵 불교가 귀족 불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무왕과 귀족 세력의 타협에서 미륵사 창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서기 610년대 초반에 초창²⁴⁾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선화공주가 일찍 사망하고 사택적덕의 딸이 두 번째 왕비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미륵사는 선화공주의 발원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에 나오는 사택왕후에 대한 기록이 서로 상치되지 않는다. 즉, 미륵사의 중원은 선화공주의 주도하에, 그리고 동원과 서원은 사택왕후의 주도하에 창건되었다고 본다면 큰 무리가 없다.

미륵 신앙의 개념과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미륵사 창건의 주체 문제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서동 설화’의 미륵

23) 서기 638년에 해당한다.

24) 김주성, 『백제 무왕의 즉위 과정과 의산』, 『마한백제문화연구』,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215쪽.

사 창건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자. 『삼국유사』 무왕 條에 따르면 무왕의 왕후가 된 선화공주가 미륵삼존의 출현을 보고 무왕에게 청하여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내용이 나온다.

하루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다가 용화산 아래의 큰 못가에 이르자 못 가운데서 미륵삼존이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경례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이르되 나의 소원이 이곳에 큰 절을 이룩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에게 가서 못을 메울 것을 물었더니, 신력으로 하룻밤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어서 미륵삼상과 회전.탑낭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액호를 미륵사라 하였다.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서 도와주었다.²⁵⁾

설화에서 선화공주는 무왕과 함께 사자사로 행차하다가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서 미륵삼존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무왕에게 미륵사를 지을 것을 간청한다. 선화 공주가 미륵사 창건의 주체로 확인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륵사’라는 이름은 미륵삼존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무왕 대에 창건된 미륵사는 미륵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였을 것이다.

미륵보살은 석가의 일생보처 보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석가에 이어서 다음 대의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보살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 있어서 과거불, 현재불에 대하여 당래불인 것이다.²⁶⁾ 이러한 미륵은 도솔천에 올라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며, 석가의 열반 뒤 도솔천의 수명이 다 할 때, 하늘에서 인간의 지상 세계에 내려와 설법을 행하게 되는데, 일반 신도들은 용화 3회의 설법에 참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륵 신앙이다. 이러한 미륵 신앙은 미륵을 받드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륜성왕 사상도 깔려있다. 미륵이 하생하여 중생을 제도할 때 전륜성왕이 정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이상 군주인 전륜성왕 사상은 세속의 최고 통치자

25) 노중국,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 제107권, 한국사 연구회, 1999, 28쪽. 노중국은 이 논문에서 지명은 무왕의 신임을 받아 불교계를 장악했던, 미륵 신앙을 추구한 백제 승려로 보고 있다.

26) 김삼룡, 『미륵불』, 대원사, 1991, 10쪽.

인 왕의 권위를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미륵 신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봉안기에서는 미륵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석가불인 법왕(부처님)과 사리봉양을 언급하고 있으니 석가불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²⁷⁾ 미륵 신앙과 전륜성왕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첫째, 전륜성왕의 통치를 도움, 둘째, 혼란한 사회를 개혁함, 셋째, 계율의 강조, 넷째, 이상 사회의 건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의 내용은 사택왕후를 전체적인 미륵사의 창건 주체로 인정할 수 없는 배경이 되며 미륵사의 증원은 미륵신앙자인 선화공주가 창건을 주도했고, 동원과 서원은 법화신앙자인 사택왕후가 창건을 주도했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혹자는 당시에 백제와 신라가 원수와 같은 사이였는데, 무왕과 선화공주의 혼인이 가능했겠는지, 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서 미륵사의 창건을 돕는다는 기록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배신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공취한 직후에도 백제 성왕이 진흥왕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 진흥왕의妃로 삼게 한 기록이 있다. 긴박한 전시 중에도 그러한 國婚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더구나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혼인은 정식 국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왕의 지략과 선화공주의 유배에 따른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었다. 또, 무왕의 아들 의자왕도 치열한 전시 상황에서 신라 선덕여왕의 요청을 받고 백제의 장인 아버지를 보내 신라의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을 도운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인적인 교류는 전시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몇 가지 역사 기록과 당시의 정황도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의 존

27) 김주성,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 출토에 따른 제설의 검토』, 『한국사논집』 제47권, 동국대학교 사학회, 2009, 40쪽.

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난 날 백제의 선왕은 반역과 순종의 이치에 눈이 어두워 이웃 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고 인척간에 화목하지 못하였다. 고구려와 결탁하고 왜국과 서로 통하여 함께 잔인함과 포악함을 일삼아 신라를 침략하여 고을을 겁탈하고 성을 도륙하여 거의 편안한 날이 없었다(往者 百濟先王 迷於逆順 不敦鄰好 不睦親姻 結託高句麗 交通倭國 共爲殘暴 侵削新羅 剽邑屠城 略無寧歲). -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5년 기사

이 글은 당나라 입장에서 백제를 꾸짖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不敦鄰好 不睦親姻이라는 부분이다. 이웃 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고 인척간에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은 백제가(의자왕이) 이웃 나라이자 인척 관계인 신라와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고 신라를 자주 공격한 것을 가리키면서 꾸짖고 있는 내용이다. 『화랑세기』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당나라의 재상이 문기를 “너희 나라(신라)와 백제는 서로 혼인을 했는데, 지금 어찌하여 서로 다투는가?”(唐相問 爾國與百濟相婚 今何相爭) - 『화랑세기』 20세 예원공조

물론, 『화랑세기』는 위서 논쟁이 있는 공인받지 못한 역사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삼국사기』의 내용과 『화랑세기』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백제 왕자 서동과 신라 공주 선화의 혼인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자왕의 행적이나 관련 기록을 보아도 선화공주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우선 의자왕의 생모 문제를 짚어본다면 사택왕후는 의자왕의 생모가 될 수 없다. 의자왕은 무왕 말기인 632년에 태자로 책봉된다. 의자왕의 장남인 부여 용의 나이가 백제 멸망 당시인 서기 660년에 45세였던 것을 감안하여 역추정하면 의자왕은 대략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태자로 책봉되는데 주위의 반대와 견제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 공주인 선화공주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백제 조정에서는 의자왕의 태자 책봉을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택왕후의 나이를 추정해보아도 의자왕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미륵사 사리봉안기의 연대인 기해년, 즉 서기 639년에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에 사택적덕은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사택적덕이 유력한 현직 관료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그의 딸인 사택 왕후는 당시에 많아야 40대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자왕 역시 (장남인 부여 융의 나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40대의 나이가 된 것으로 보았을 때 사택왕후가 생모일 수는 없다.

이도학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신라의 선화공주를 의자왕의 생모로 추측하고 있다.

공주 취리산에서 웅진도독 부여 융과 신라 문무왕 간에 체결한 맹문(盟文)에 보면 백제 선왕이 친인(親姻), 즉 인척과 불목하였다고 한다. 백제 선대 임금들의 이른바 죄상을 성토했다는 구절에 보이는 인척과의 불목은 무왕이 인척인 신라를 공격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무왕이 선화 공주와 결혼한 사건은 사실로 밝혀진다. 『唐平百濟國碑銘』에서 의자왕의 실정을 거론하는 문구에서 ‘동벌친인(東伐親姻)이라고 한 구절이 주목된다. 여기서 ‘친(親)에는 ‘부모’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동쪽으로는 이웃의 부모(나라)를 정벌하였다”로 해석된다. 신라는 의자왕의 어머니의 나라 즉 모국이 되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게 가능하다. 이로써 의자왕은 무왕과 신라 선화 공주 사이의 소생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²⁸⁾

『唐平百濟國碑銘』에 나오는 “九夷²⁹⁾는 만리에 뚝 떨어져 있어서 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감히 천륜을 어지럽혀 동쪽으로는 가까운 이웃을 쳐서 …”라는 내용에서 ‘천륜(天倫)을 어지럽혀’라는 구절도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장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를 어지럽힌다는 의미로 의자왕이 생모의 나라를 공격한 행위를 비판하는 대

28) 이도학, 『백제인물사』, 주류성, 2005, 147쪽.

29) ‘백제’를 가리킴

목으로 볼 수 있다.

의자왕의 즉위 후 행적을 보아도 의자왕의 생모는 선화공주임을 알 수 있다. 의자왕은 서기 641년에 즉위를 했고, 『일본서기』의 서기 642년 조 기록을 보면 그 해 무왕의 왕후³⁰⁾가 죽자마자 자신의 남동생인 교기³¹⁾와 國主母의 여동생 네 명 등 모두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하는 숙청을 단행한다. 이는 의자왕의 태자 책봉 및 권력 승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國主母는 무왕의 왕후를 뜻하는데, 國主母는 선화공주가 아닌 사택왕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섬으로 추방당한 國主母의 여동생이 신라의 공주인 선화공주의 동생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의자왕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정적이었던 사택왕후의 혈육들을 모두 숙청한 것이다.

그리고 즉위한 이듬 해, 신라를 공격하여 40여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의 주요성인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등 신라를 줄기차게 공격한 것은 오히려 신라 공주의 아들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귀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동 설화’ 중 ‘미륵사 창건 설화’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서동설화’에 보면 서동과 선화가 함께 백제로 왔을 때 선화공주가 자신의 어머니가 준 금을 팔아서 생계를 꾸리려고 할 때 서동이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자 선화공주가 황금이라고 대답하자 서동이 “내가 어려서부터 마를 파던 곳에 흙과 같이 쌓아놓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서동이 마치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묘사한 이 부분은 오히려 황금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동의 성장지인 익산 가까이에 있는 김제시 금구면에는 현재까지도 사금을 채취하고 있다. 1970년대~80년대까지만 해도 다량의

30) 사택왕후로 추정된다.

31) 의자왕의 배다른 남동생, 즉 사택왕후의 소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금을 채취했다고 한다. ‘금구’라는 지명 자체도 ‘금이 나오는 도랑’이라는 뜻이고, 이 지역에는 지금도 산자락에 폐금광의 흔적이 수십 개 남아 있다. 아마도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금은 砂金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익산 부근에서 다량으로 채취한 금은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서동요> 자체도 서동왕자 무왕과 선화공주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서동요>는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신라 향가 14수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소개한 역사 기록과 역사적 정황을 보아도 무왕의 왕비, 의자왕의 어머니는 신라 공주 선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서동요>의 존재 자체가 신라와의 연관성을 말해 주고 있다. 만약 무왕이 백제 여인과 우여곡절 끝에 혼인을 했다면, 즉 <서동요>의 주인공이자 무왕의 왕비가 된 여인이 신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신라의 노래 향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에 포함되어 전해졌을 리가 만무하다. 신라의 공주가 적국의 사내와 사랑한 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었을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서동설화’와 관련하여 <서동요>의 저자인 서동왕자의 정체와 미륵사 창건설화의 주체인 선화공주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들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근래에 발표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서동의 정체는 백제의 무왕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많지만 서동요와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선화공주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익산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봉안기>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선화공주는 허구의 인물, 설화 속의 인물로 단정짓고 미륵사 창건의 주체를 사택왕후로 단정짓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본고는 ‘서동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삼국유사』를 ‘神異로서의 역사’

서술로 보고 이 문제를 접근했다. 그 결과 <서동요>의 작자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진평왕 재위 및 미륵사 창건 연대와 무왕릉으로 전하는 익산 쌍릉의 구조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백제 무왕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으로는 <서동요>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자 미륵사 창건의 주역인 무왕의 왕비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봉안기> 발견을 계기로 신라 선화공주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택왕후가 미륵사 창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려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사리봉안기>에 나오는 사택왕후의 법화신앙은 미륵사 창건의 요인이 된 미륵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써 오히려 미륵사 창건의 주역이 사택왕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사리봉안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불교 신앙과 미륵사 창건의 배경, 그리고 무왕과 의자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미륵사의 初創은 무왕과 선화공주가 주도했으며, 사택왕후는 무왕 재위 말기 미륵사지 서원과 동원의 창건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설화는 역사 그 자체일 수는 없지만 역사를 반영한 기록일 수는 있다. 서동설화 자체가 역사의 설화화가 진행된 결과물인 것이다. 『삼국유사』 奇異 편에 수록된 ‘서동설화’는 역사와 설화, 역사와 神異가 결합된 채로 서술되었다. ‘서동설화’에 수록된 내용을 모두 역사로 인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설화가 형성되고 전승되어 『삼국유사』의 저자인 一然에게 채록된 것은 민중의 삶과 꿈이 녹아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동설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꿈을 반영했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접수일 : 2011.04.28 / 심사일 : 2011.05.07 / 게재확정일 : 2011.05.21

<참고 문헌>

- 김부식,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89.
- 일연, 김원중 역주, 『삼국유사』, 일유문화사, 2002.
- 김문태, 「서동요와 서사문맥」,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 연구』, 태학사, 1995.
- 김삼룡, 『미륵불』, 대원사, 1991.
-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선명문화사, 1974.
- 나경수, 「건국신화의 서사문학적 전개」,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I』, 중앙문화사, 1995.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서재극,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1957.
- 이도학, 『궁예 진훤 왕건의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 이도학, 『백제인물사』, 주류성, 2005.
- 이병도, 『한국사』, 을유문화사, 1977.
- 장덕순 외, 『구비문학 개설』, 일조각, 1995.
- 최래옥, 「서동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길기태, 「무왕대 미륵사 창건과정과 불교계」,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불교』, 한국사상사학회 발표 요지문, 2009.
- 김균태, 「한국 설화에 있어서 신화적 인물의 출현방식과 의미」, 『운당 구인환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한샘출판사, 1989.
- 김상현,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마한백제연구소백제학회, 2009.
- 김선기, 「쇼땅노래」, 『현대문학』 통권 151호, 1967.7.
- 김성기, 「무왕조서동요 배경담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6권, 한국언어문학회, 2001.
- 김주성,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안기 출토에 따른 제설의 검토」, 『한국사논집』 제47권, 동국대학교 사학회, 2009.

- 김주성, 「백제 무왕의 즉위 과정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上, 창작과비평사, 1976.
- 김학성,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시고」,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 노중국,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 제107권, 한국사 연구회, 1999.
- 박현숙, 「백제 무왕의 익산 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제36권, 고려사학회, 2009.
- 사재동, 「'서동설화' 연구」, 『장암 지헌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 윤영옥, 「무강설화의 인정」, 『민족문화논총』 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 윤철중, 「무강신화의 성립」, 『자하어문논집』 13집, 상명어문학회, 1998.
-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 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 이병도, 「'서동설화'의 신고찰」, 『역사학보』 1, 1953.
- 조경철, 「백제 익산 미륵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 『한국사상사학』 제32권, 한국사상사학회, 2009.
- 조홍욱, 「서동요 배경설화의 구성방식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조희웅, 「삼국유사 불교설화의 형성과정」, 정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하정현, 「일연의 신화인식에 관한 연구-『삼국유사』 기이편 소재 시조신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홍기삼, 「무왕설화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8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회, 1996.

Abstract

A study on Main agent of "Seodong Tale" / Han, Yaechan

"Seodong Song" is an old Korean folk song known to be composed by King Moo of Baekje. According to the section of King Moo from "The Singular" of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the young Seodong, who later became the 30th King of Baekje, composed the song when he went to Seorabul, the capital of Shilla, in his attempt to win the love of Princess Seonwha.

Regarding the identity of Seodong, one of the main protagonists of "The Seodong Tale"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critics have been divided, suggesting various historical figures as Seodong such as King Mookang, King Dongsung, King Mooryung, King Mookang, Wonhyo as well as King Moo.

As for the identity of Princess Seonwha, the other protagonist of "The Seodong Tale," both Princess Seonwha and a daughter from a Baekje aristocratic family were equally gaining support from critics until the discovery of *Records of Saribongabn* in the western pagoda of Miruksa Temple in which Queen Sa-taek is recorded as the wife of King Moo.

After a careful study of the reigning period of King Jinpyung, the foundation date of Miruka, the structure of the twin tombs in Iksan known as the tomb of King Moo, this essay concludes that the historical figure fictionalized as Seodong in "The Seodong Tale" is King Moo as recorded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Countering the recent trend of seeing Queen Sa-taek as Princess Seonwha in "The Seodong Tale," this essay argues that Princess Seonwha from Shilla is in fact Princess Seonwha in the tale, focusing on the fact that Queen Sa-taek supported Bupwha faith rather than Miruk faith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foundation of Miruk Temple. A close analysis of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reveals that King Moo and Princess Seonwha initiated the foundation of Miruk Temple, and Queen Sa-taek's role was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western and eastern pagodas. "The Seodong Tale," then, is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is a text that used real people to depict the hopes and dreams of its contemporary people.

Key words: folktale, history, Miruk faith, people.